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고속철도 경주통합역사

홍성청소년수련관

거제시 옥포종합복지회관

고속철도 경주통합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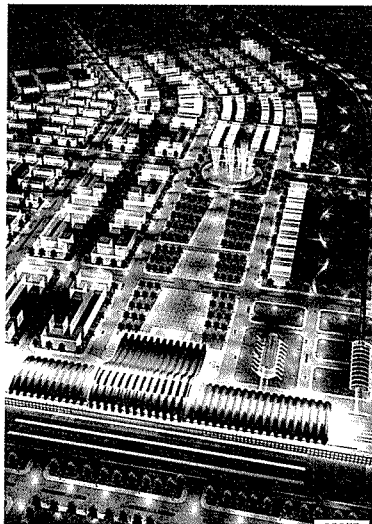
Kyungju Hige Speed Rail Station

말 많던 경주고속철도역사가 건천역으로 결정되었다. 이에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은 역사 공모전을 실시 총 8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최우수작에 포스에이씨(심인보)안, 우수작에 남산건축(이항섭)안, 가작에 동우건축(김태인)안과 (주)원도시건축(변용)안, 입선작에 (주)공간건축(이상림)안과 (주)아키플랜(김우성)건축안을 선정, 그 결과를 지난 97년 11월 22일에 발표했다.

이 공모전심사에는 김경환(경상대), 김동현(국립문화재연구소), 김문한(서울대), 김상균(철도청 건축과),

김영수((주)건축국), 김성곤(동아대), 김정호(경주시 건설도시국), 박용환(한양대), 신기철(한양대), 이각표((주)엄&이건축), 이명호(중앙대), 이우현(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 이용하(신건축), 장경환(한국고속철도 설계건설공단), 정채철(국민대)씨 등이 참여했다. 이날 심사에서 최우수작인 포스에이씨안은 전통 한옥의 기와지붕 골 모양에서 역사의 지붕 이미지를 차용했으며 입면은 석축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구성해 고전적인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승객동선과 환승동선의 분리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고, 우수작 남산건축안은 환승동선을 승강장 위에 두고 밖에서 역사내부를 보이도록 개방성을 강조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내부동선과 외부동선 체계가 잘 구성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유리로 마감한 지붕 및 외벽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지적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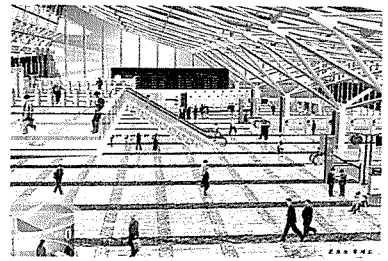
▶ 최우수작 / 포스에이씨(심인보)



조감도



정면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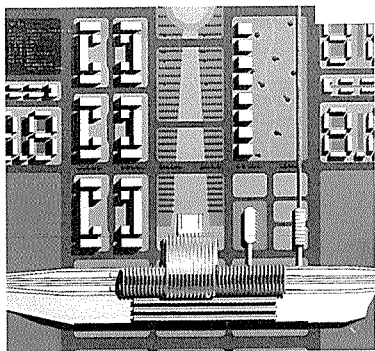
콘코스 투시도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부지면적	107,919㎡
건축면적	33,130㎡
연면적	53,225㎡(민자유치면적 제외)
건폐율	30.7%
용적률	50%
구조	철근콘크리트(지하), 철골구조(지상)
주차대수	344대
외장자료	알루미늄 복합패널(지붕), 화강석 버너구이(외벽), THK24 강화유리(Curtain Wall, S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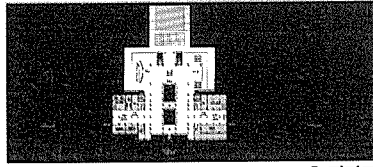
경주역사는 고속철도로서의 기능과 일반 철도, 버스, LRT 등의 각종 교통수단들과의 환승시설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신라의 천년고도이자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적 문화유산으로의 지정이 예상되는 인류문명의 보고인 경주의 관문으로서의 랜드마크적 역할을 그 형태와 기능면에서 만족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단순히 이용객들이 스쳐지나가는 기계적 통로로서의 기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적이거나 머무름의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하는 정서까지도 고려한 장소로서의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계획하였다. 경주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불국사의 전통 지붕곡선 형태에서 차용한 곡선을 응용하여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차세대의 쾌적한 교통수단인 고속철도의 이미지를 살린 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재료의 모듈화, 전면 지상층 구축에 의한 토공량의 최소화 등을 통해 경제적인 시공이 되는 건축을 추구하였다. 전체 대지에 건물군(역사+환승시설)을 중심으로 하여 주차장, 광장 등을 역사 전후면에 하나의 축으로 배치하면서 언더 패스를 통한 전면과 배후도시의 연계에 의한 성장축진 및 중심부

광장 주위의 교통량을 고려한 일방통행, 시스템 도입 및 교통량 분산을 위한 외부 순환도로의 양방향 통행시설 설치를 통한 효율적인 교통순환체계에 의한 교통 결절점으로서의 유기적인 연결체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속철도의 선적인 운동을 모티브로 하여 역사 및 환승시설을 처리하고 유기적인 공간구성이 되도록 하면서 콘코스의 전면배치(2층) 및 중앙광장과 램프에 의한 연결처리는 콘코스를 반외부 공간화가 되도록 시각적 연계를 확보하면서 주변의 쾌적한 공기와 채광, 전망 등의 자연요소를 최대한 이용했으며, 주차장 및 기계실(1층)-콘코스(2층)-대합실(3층)-승강장(4층)으로 관통되는 수직 공간은 동선의 단축 및 출발 도착동선의 분리를 통한 교통혼잡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였다. 소음 및 열차풍 배출 계획은 선로 하부에 진동담판을 설치하여 바닥 충격음이 완충되도록 하면서 승강장 지붕을 요철형상으로 처리하여 소음이 분산되도록 하였고, 지붕에는 오픈 공간을 설치하여 일반소음 및 고속 통과 열차의 바람이 자연스럽게 천장으로 배출토록 계획하였다. 첨단 시설시스템을 도입하여 기존 및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절한 환경조건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콘코스에는 자연광이 최대한 도입되도록 하면서 플랫폼 및 대합실에는 지붕의 조형성과 아메니티(Amenity) 고양을 위한 국부조명과 간접조명으로 이용한 상부조명(Uplight)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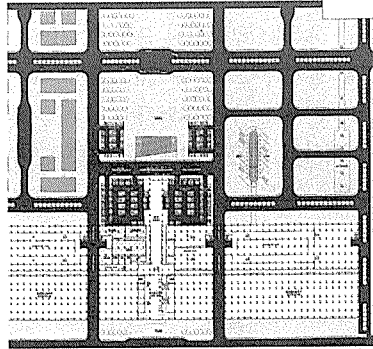
구조방식으로는 전통적인 한옥지붕골의 형상인 물결모양 형태를 차용 양방향 이차 시스템(Two Way a System)에 의한 부재의 경량화 및 공간이 형성되도록 하였고 이차 타이 바(Tie-Bar)로 연결하여 축력이 상쇄토록 하여 개방된 공간이 가능토록 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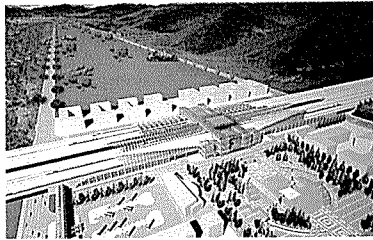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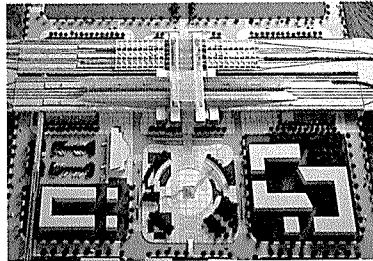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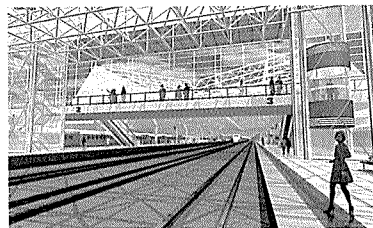
▶ 우수작 / 남산건축(이항섭)



조감도



모형도



내부투시도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대지면적	107,919㎡
연면적	92,369.05㎡
용적률	85.6%
건축면적	38,098.44㎡
건폐율	35.3%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주차대수 442대(직원용 : 90, 장애인용 : 16) 장애 민자주차 : 528대
 주요외장 투명복층 유리+알루미늄 패널
 주요구조 메가트러스(승강장)+스페이스 프레임(역무공간)

계획의 개념

오늘날 여행과 운송은 일상생활의 기본 요소이자 필수 불가결한 생활수단으로 변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학창시절에 가슴 설레이며 기다리던 수학여행이 먼저 떠오르고, 천년 신라의 고도임을 생각하게 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관광도시로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고속철도 경주통합역사는 여러가지 형태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계획개념으로 하여 추억과 함께 영원히 기억속에 남기고자 하였다. 세계속에 비상하는 경주, 관광도시의 관문으로서의 상징성을 하이테크 기법으로 현대적으로 계획하였으며, 이용객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친근감 있는 역사가 되도록 하였다.

〈상징성〉

1. 역사, 전통, 지역의 상징성
 - 불국사 : 전면 이미지
 - 천마총 금제 날개모양 금관장식 : 양날개
 - 석기탑의 적층 이미지 : 전면 수직매스에 부착된 수평살
 - 향교의 문 : 경주의 관문
 - 신라의 탄생 '난생설화' : 전면광장에 도입
2. 고속철도의 상징성
 - 쾌속의 이미지와 방향성 : 수평날개로 표현
 - 고속철도의 첨단성 : 하이테크적인 경쾌한 이미지로 구현

배치계획

- 통합역사로서의 기능
 - 단계별 구분공사를 고려한 매스계획→고속철도와 일반국철을 15m 이격하여 단계마다 기능과 외관의 완결성 부여
 - 여객수송의 신속화, 대량화에 대응하여 연계시설들의 동선 단축
 - 향후 일반철도, 시외버스 터미널, 경전

철 운영을 고려한 배치구성

- 철로로 양분된 전후면 광장을 강한 2개의 매스축으로 연결하여 연속성을 부여
- 광장계획
- 역이용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교류기회 제공
-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이미지 → 난생설화의 이미지화로 경주의 역사성, 지역성 부각
- 고속철도 역세권 시설 이용자들에게 접근성을 높여 쾌적하고 친근감있는 장소 제공
- 만남, 휴식, 집회 등의 다양한 광장기능의 충족과 균등의 집분산 유도
- 수중조명, 바닥조명, 가로등의 효과적인 계획으로 야간의 조명경관 연출
- 전면광장과 후면광장의 녹도축 형성
- 역사로 진입하는 전이공간으로 역세권과 역사와의 완충효과

평면계획

- 고속·일반철도의 분리
- 역사 내부에 적극적인 자연채광과 환기
- 구조물 하부 주차장의 지하화 방지
- 단계별 확장공사시 공사의 편리 도모
- 고속철도와 국철, 승강장 상부의 구조 분리
- 환경을 고려한 역무시설의 배치
- 역내시설과 직결된 최상부에 위치
- 조망, 채광, 통풍에 유리
- 대합실의 보행동선
- 콘코스에서의 연결동선 분산
- 콘코스에서의 동선을 입체적 처리
- 연계 교통수단과의 편리한 여객동선 구성
- 체류공간과 유동공간의 명확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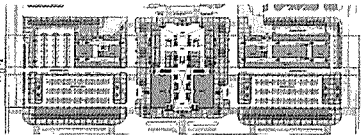
단면계획

- 내부공간의 수직적 연속성
- 콘코스 (GL+0.5m) → 대합실 레벨 (GL+6.5m) → 승강장 (GL+12.5m) → 환승 (GL+20.5m) 순으로 진행하면서 보행목적의 구체화
- 1층전면 홀 상부 오픈 외부공간의 인입 및 전이공간, 전후면 연결
- 지상층에 상부 오픈된 콘코스를 둠으로써 외부의 축을 연장, 역사 전후면의 단절 극복

- 출입홀 상부를 오픈시켜 역사내부와 외부사이의 전이공간 형성
- 일반철도와의 환승도선은 승강장 상부에 설치하여 비환승동선과 분리
- 환승통로의 시각화
- 계층적 공간구성으로 자연스런 동선유도
- 환승통로를 승강장 상부에 설치하여 인지성을 높임
- 진출입승객과 동선분리
- 전후면 연결축의 시각화
- 콘코스의 입체적인 확장
- 전면광장과 후면광장을 연결하는 옥내 광장의 성격 부여
- 층간 개방으로 콘코스와 인접공간과의 시각적인 연결, 쾌적함 확보, 방향성 부여
- 자연채광, 환기
- 대합실, 콘코스, 실내정원에 자연채광 및 환기
- 승강장에서 자연채광, 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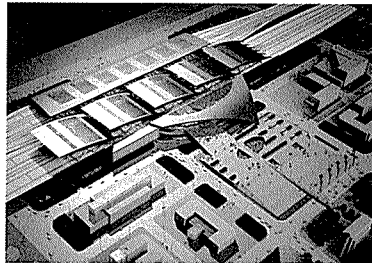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가작 | 동우건축(김태인)



조감도



모형도

위치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총부지면적 107,919㎡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62,125㎡
건폐율	57.6%
연면적	88,810㎡ - 고속철도 55,010㎡ - 일반철도 33,800㎡
용적률	69.0%
주요구조	철골조 트러스, 철근콘크리트조
주차시설	총 546대(고속철도 370대 · 일반철도 276대)

토지이용계획 및 배치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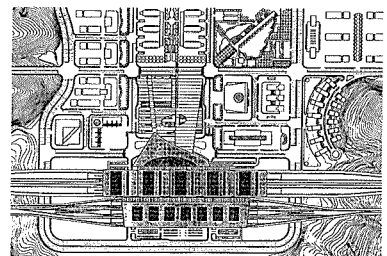
- 설계 대상구역에는 역사시설, 민자시설(추후시설), 주차장 등의 교통시설, 광장을 설치하고 설계대상외의 구역에는 유치시설(버스환승시설, 상업, 업무, 문화시설 등)배치
- 지역사회를 위한 공원화 계획 : 전면에 대규모 집회가능한 광장 확보, 후면에 휴식광장 계획
- 시외버스 환승체계와 탑승공간의 수평적인 구성체계
- 전통건축의 진입공간 재해석에 따른 공간배치

형태 및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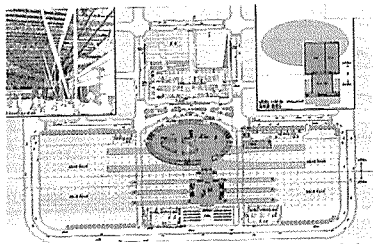
- 고속철도 이미지에 상응하는 첨단 하이테크 건축의 표현
- 경주시의 역사성과 고속철도의 상징성을 이원적으로 표현
- 미래지향적인 동적 표현

공간구성 및 단면계획

- 미래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요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있는 공간계획
- 고속철도의 콘코스 공간에 개방감 확보 및 적극적인 자연채광 유도
- 실기능에 적합한 층고계획
- 역무시설의 별도처리로 독립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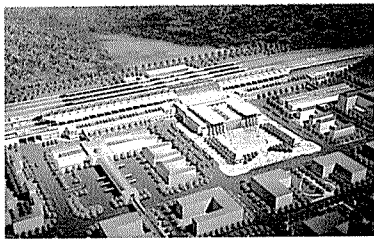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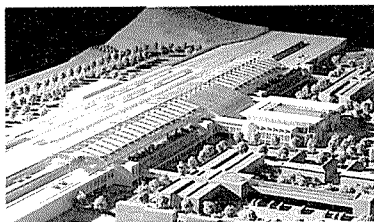


콘코스평면도

▶ 가작 II / (주)원도시건축(변 용)



조감도



모형도

토지이용계획

- 역사전면 상업용지에 시외·관광버스터미널과 경전철을 연결하여 환승시스템 구축
- 상업시설, 호텔 등을 역사와 연계개발
- 역사권 중심축과 광장축의 연속성 유지

배치계획

- 철도역사의 '도시속의 초점(Focal Point)' 추구
- 역사 Zone과 상업시설(민자) Zone의 구분으로 외부 및 내부동선 혼란 방지
- 교통동선과 인간의 만남, 집회를 위한 광장설치
- 진입의 다양화로 여객분산 및 Quick Service 유도

평면계획

- 출발, 도착의 동선분리 → 일반철도도 동일 시스템 적용
- 출발, 도착동선 주위에 적절한 여객편의시설 배치 → 체류, 거주 의미 부각
- 여객공간과 역무공간의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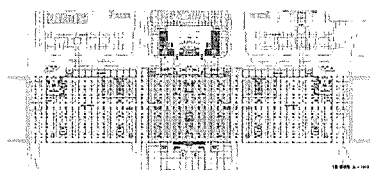
- 내부공간의 위계설정 → 흥미로운 공간 체험
- 통제(Control)의 효율성 → 범죄예방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 경제성 고려 → 선로하부 상업시설(민자) 최대 확보 및 역사시설 부분 최적화

단면계획

- 투명성(Transparency)에 의한 공간 인지 및 안전 확보
- 광장과 콘코스 레벨 동일처리 → 역사의 도시성 강조
- 경제성 고려 → 콘코스 : 약 16m의 천정고로 공간성 및 경제성 추구 → 승강장 하부에 콘코스, 연결통로, 옥외주차장 확보(지하개발 억제)
- 내부 벽면을 멀티비전 Screen으로 활용
- 실내조경 도입으로 쾌적성 확보

입면계획

- 마감처리 차별화 → Low Tech의 웅장함(저층부)과 High Tech의 경쾌함(상층부) 추구
- 역사적 위 상업시설(민자) 입면은 유리로 경쾌한 처리
- 전통 이미지의 추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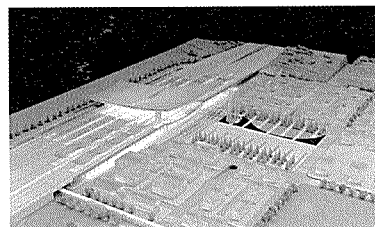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 입선 I / (주)아키펠랜(김우성)



조감도



모형도

대지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지역지구	상업지역 적용
대지면적	107,919㎡
건물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35,828㎡
연면적	52,341㎡
건폐율	33.2%
용적률	44.6%
구조	철근콘크리트+스페이스 프레임
외부마감	컬러복층유리, 알미늄 복합패널, 안전접합유리
주차대수	고속철도 역사이용객용 : 257면 역직원용 : 97면

토지이용계획 및 역사 배치계획

- 승강장의 중심부에 놓인 역사의 지붕이 기능적 목적에 부합
-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지하공간의 최소화
- 합리적인 상업시설의 배치
 - 토목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2단계 시설에 제안하여 통합역사 기능과 복합적으로 활용
- 광장과의 연계성 강조
 - 도심공원 녹지계획으로 전면 광장 중심에 녹지축 형성 및 향후 도심 개발축과 연계
- 환승 교통시설의 집약
 - 경전철 승강장 및 시외버스 환승 터미널을 집중시켜 짧고 명쾌한 환승 동선 구축
- 1단계 건설후 2단계 건설까지의 여유지 활용
 - 1단계시설(고속철도역사)을 지원하는 여유주차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

내부공간 계획

- 평면계획
 - 콘코스, 매표, 대합, 개찰, 승차공간에 이르는 동선을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구성
 - 대공간의 콘코스가 원활한 여객동선의 중심공간을 이루고 부출입구에서 콘코스 중심까지 연결되는 동선상에 여객편의시설을 적절히 분산 배치
 - 역무시설과 여객시설의 분리된 여객편의 확보

- 상업유치시설과 역사와의 연계동선을 편리하게 고려

•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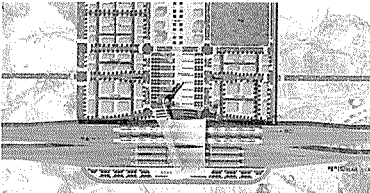
- 승강장 하부의 12m 높이의 층고를 활용함에 있어서 중층을 최소화하여 대공간의 콘코스를 계획함으로써 최대한의 쾌적한 공간 형성

- 부출입구를 필요한 위치에 배치하여 주차장 및 버스환승시설, 경전철과의 환승 동선 최단화

- 콘코스까지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승강장 바닥에 유리블럭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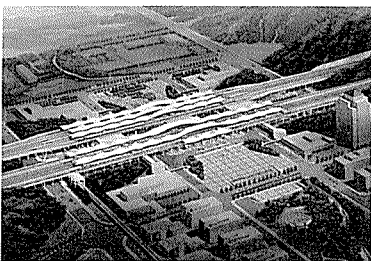
입면계획 및 재료마감표

-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는 재료의 선택
- 유리의 효율적 사용으로 내부 구조를 드러내어 경쾌하고 현대적 역사의 이미지 창출
- Mass의 볼륨들의 다양한 변화를 절제하는 파사드면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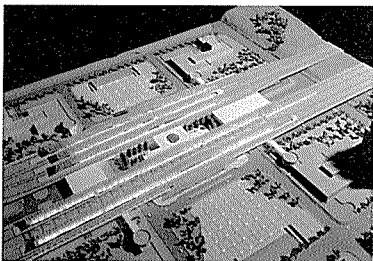


배지도

▶ 입선 II / (주)공간건축(이상림)



조감도



모형도

대지위치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원

지역지구	상업지역
대지면적	107,894㎡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23,035㎡
연면적	52,627㎡
건폐율	21.34%
용적률	48%
주요마감	유리+노출콘크리트, 패브릭 (Fabric)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지붕)
주차대수	지하152대, 지상 497대

계획개념

- 경주를 존중하는 역사
 - 경주의 옛 도시계획, 즉 방리(坊里)의 모듈(140m×160m)을 역사 및 주변 도시개발에 적극 도입하여 계획의 기본 모듈로 활용
 - 경주시의 스케일에 적합한 구조물로서 주위경관을 압도하지 않는 미관
 - 한국 고유 건축물의 공법을 현대적 감각으로 해석
- 자연을 존중하는 역사
 - 부드러운 중첩의 마를 가진 경주의 산세와 역사 지붕디자인과의 조화
 - 역사부지 주변의 지형지세와 역사와의 결합
- 경제적인 역사
 - 최소한의 구성요소로서 역사기능 소화(지붕)
 - 경제적인 재료와 공법 채용(철근콘크리트조, 모듈화된 지붕재)

배치계획

- 도시 및 역사 Block의 모듈
 - 경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 방리(坊里)의 모듈(160m×140m)을 도시개발 및 역사의 모듈로 적용
- 도시발전축
 - 도시축을 주축으로 단지개발을 부축으로 설정하여 역사를 중심으로 한 단지 개발 축의 활성화 도모(상업시설, 숙박시설, 스포츠시설)
- 보행자 중심의 도시구조
 - 도시발전축을 따라 도심의 중심축은 전면, 후면광장과 문화공간 및 자연녹지가

가 수공간과 연계하여 막힘없는 역사에로의 진입을 유도

• 스카이라인

- 주변 지세와의 조화를 꾀한 도시계획으로 부드러운 스카이라인의 형성

평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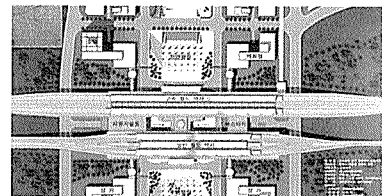
- 경주 고유 방리(坊里)의 모듈 적용
- 역사로인한 역사후면 도시와의 분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사를 관통하는 통로의 차량 및 보행자동선의 전후면 광장과의 연결과 시각성의 확보
- 여객, 역무동선의 기능적 분리 및 유기적 연계
- 여객동선의 승하차분리 및 환승터미널과의 내부 연결
- 역사 Platform 하부공간의 상업 및 스포츠시설 등 최대한 이용
- 역무시설을 철도의 진동을 느낄 수 없는 철도 하부구조물에서 분리된 곳에 배치

입면계획

- 중첩된 자연경관의 미와 조화를 꾀한 리드미컬한 지붕의 형태
- 고속철도의 역동적인 이미지에 부합되는 속도감과 방향성의 표현

단면계획

- 고속철도와 입만철도의 플랫폼(Platform)을 분리하여 자연광과 외기의 적극적으로 자연스런 유입을 도모
- 공사계획에 따른 단계별 시공의 용이
- 고속철도와 일반철도의 전면 콘코스 부분에 대공간을 구성하며 시각적인 흐름을 유도



배지도

홍성청소년수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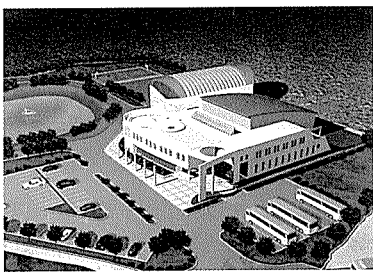
HongSung Youth Training Center

홍성군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홍성청소년수련관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12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97년 11월 19일의 심사를 거쳐 당선작에 우리종합건축(고영우+박승수)안, 우수작에 신건축(정종태)안, 가작에 S.F건축(이중연)안과 한예건축(김은철)안을 선정, 20일에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오덕성(충남대), 강인호(한남대), 이왕기(목원대), 송용호(충남대), 이재훈(단국대), 길성호(대전산업대), 이정희(대전산업대), 조영국(충남산업대), 고광성(홍성YMCA)

▶ 당선작 / 우리종합건축(고영우+박승수)



조감도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90-1번지외 4필지
지역지구	근린공원지역
대지면적	전체대지 - 34,852㎡ 계획대지 - 4,640㎡
연면적	4,152.93㎡
건축면적	2,747.05㎡
건폐율	7.88%
용적률	10.29%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철골트러스
외부마감	외벽 - 외벽단열 시스템 창호 - 파스텔 북층유리
조경면적	5,288㎡
기계설비	열원, 공조, 위생, 냉·난방, 자

동제어, 소화설비

전기설비 수변전, 중앙감시제어, 전력, 동력, 방송, CCTV설비

계획의 방향

현대의 청소년들은 각종 미디어의 홍수속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다. TV, 비디오, 영화와 같은 다양한 영상매체들이 청소년들의 감성을 좌우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그들의 시각적 감수성은 예전보다 놀라운 정도로 민감하면서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21세기의 새로운 미디어적 감성을 지닌 청소년과 역사적으로 수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홍성의 지역적 특성을 결합하는 작업이 바로 본 계획의 주요 테마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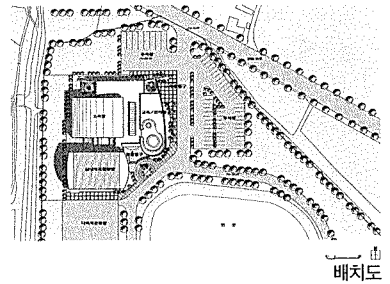
진행과정

건축적 방법으로 요란하지는 않지만 내실이 있는 공간형태와 시각적 감성을 고려한 회화적 파사드를 제시하므로써 두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결합시키고자 의도했다. 주출입구는 이미 확정된 주차계획과 도로, 진출입을 고려하여 파사드 전면부 각시키고자 했으며, 출입구 주위에는 소광장을 마련해 주고 보행공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주변환경에 대한 배려를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상 주출입구를 어디로 정하느냐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가 많았으며, 외부공간 계획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출입구의 설정은 이미 어느정도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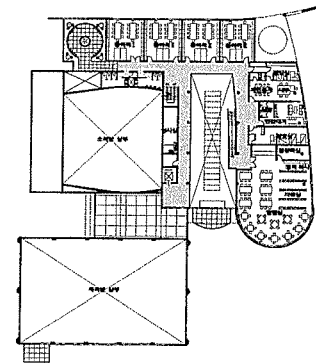
또한 부출입구와의 위계성 문제도 계속 부딪치는 딜레마였다. 결국 주출입구를 진입공간에 근접하게 두므로써 기능적으로나 상징적으로 무리가 없는 해결방법을 유도했으며, 전망이 좋은 방향으로 부출입구를 두어 옥외공간에 대한 활용을 의도했다.

로비공간은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로서 기능적이고 단조로운 실배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무미건조하고 지루한 느낌을 탈피할 수 있게 해주고자 의도했다. 즉, 로비공간속에서는 천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 2층 높이의 공간에서 울리는 소리, 그리고 직통계단의 움직임 등의 활기를 부여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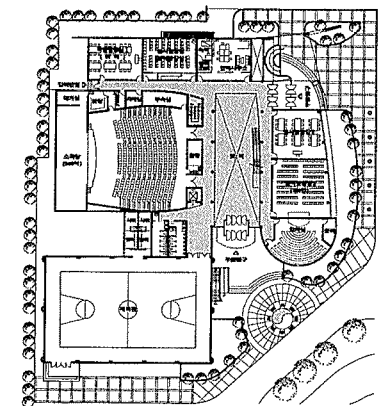
이 단조로운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이것은 다양한 전시공간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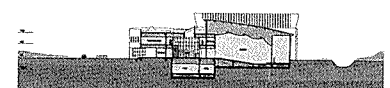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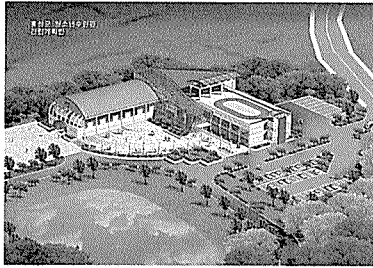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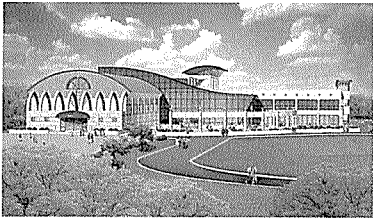
동측면도

▶ 우수작 / (주)신건축(정종태+이규환+김영배)

위치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690-1번지외 4필지
지역	근린공원지역



조감도



투시도1



투시도2

대지면적	34,852.0㎡
건축면적	2,830.8㎡
연면적	4,443.67㎡
건폐율	8.12%
용적률	11.10%
건축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건축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조
최고높이	15.8m
주차대수	55대

배치계획

- 건축 가능지역의 적극적 수용검토
- 부지의 특성과 자연환경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함
- 기능에 의한 동선의 입체적 분리
- 자연환경 및 기능에 의한 동선의 분리 및 유기적 연결
- 단지의 시설계획 및 연계성 유도
- 공간별 위계존중(정적, 동적구분)을 위한 분리배치
- 자연스런 Approach 유도

평면계획

- 계획시 Space Program에 완벽을 기하고 향후 발생할 상황까지 계획에 반영

- 상호 동선의 연결이 용이해야 하며 비슷한 기능끼리 근접 배치로 원활한 조직을 구성
- 수평동선과 수직동선의 합리적 체계확립
- 시설간 동선연결 용이성
- 관리동선의 효율성 제고
- 관리동 옥상에 로울러 스케이트장 설치로 이용자의 면적을 극대화시킴

입면계획

- 향토적 디자인 요소 추출 및 형상화
- 자연의 일부로서 기능과 조화되는 입면계획
- 인지도, 상징도, 공공성, 환경조형물의 다원적인 형태요구의 충족
- 형태분절을 통한 위압적 괴리감 축소
- 지형, 지세의 흐름에 순응하는 Sky Line형성
- 지역의 랜드마크적 이상형인 성격 부여

구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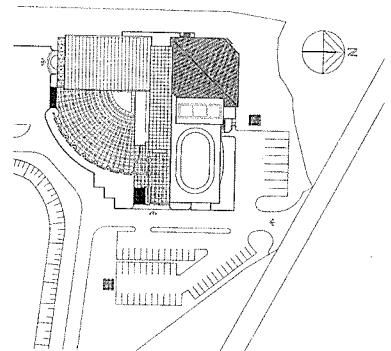
R.C구조의 Space Frame 및 Steel 구조물을 혼용하여 실의 사용과 구조의 안전성, 조형미를 고려하여 계획하였음

- 기초구조 : 추후 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직접지내력기초, Pile기초 등 적절한 기초구조 형식을 채택 예정
- 상부구조
 - 형식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지붕 : 평슬라브, 경사지붕(Space Frame, Steel 구조)
 - 계단실은 내력벽식을 채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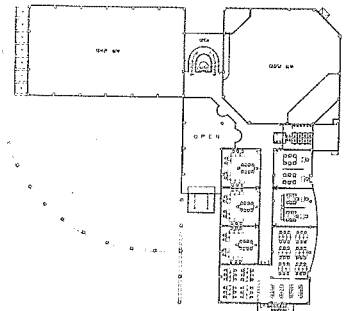
조경계획

- 청소년 수련관 단지 내숙한 외부 공간에 그 장소적 의미와 특성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므로써 외부공간의 성격과 상호 연관성을 더욱 명확히 함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부담없는 접근성 부여를 목적으로 하였음
- 주변공간과의 유기적이고 자연스런 동선 연결
- 홍성군의 상징나무와 꽃이 주종을 이루도록 하여 잔디를 식재하여 시각적인 피로감을 감소시킨다.
- 정형적인 식재로 관람객에게 방향성을 제시한다.
- 옥외 놀이공간의 바닥조장을 동선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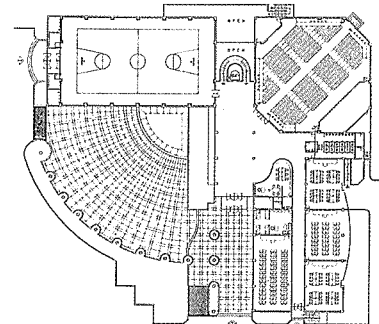
를 위한 그래픽수법의 패턴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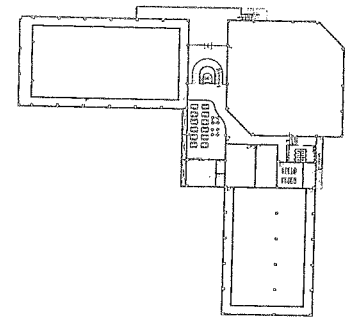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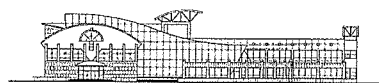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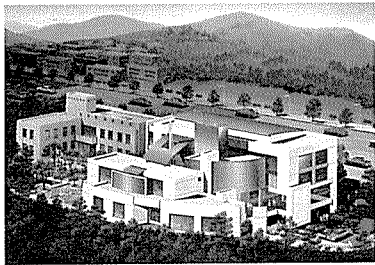
좌측면도

거제시 옥포종합복지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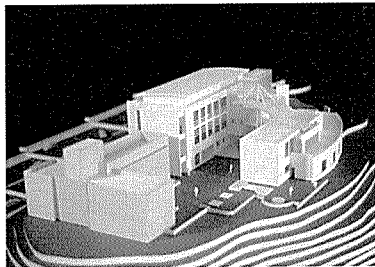
Okpo Welfare Center

거제시는 복지증진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거제시 옥포종합복지회관 현상설계 경기를 실시, 경남대 이광태 교수 및 건축사 2명, 시공무원 1명의 2차례 심사를 통해 당선작으로 세모건축사사무소(이학권)안을 선정하여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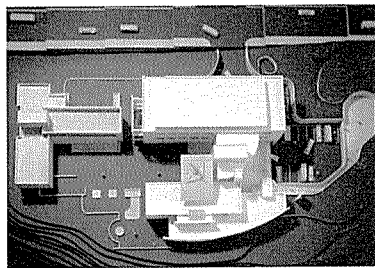
▶ 당선작 / 세모건축(이학권)



조감도



모형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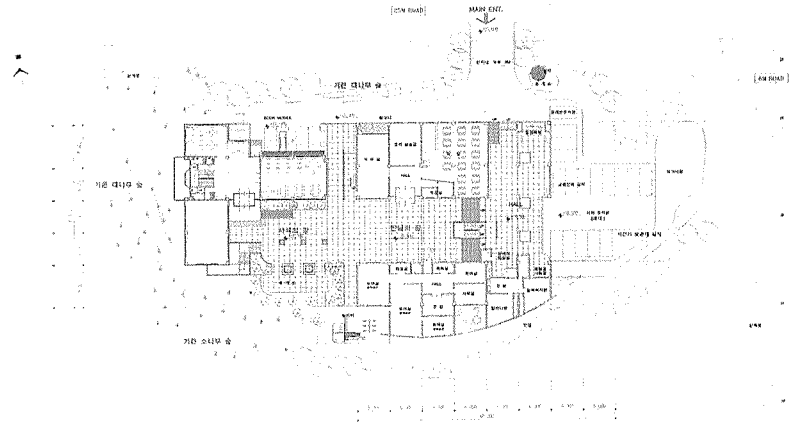
모형도2

대지위치	거제시 옥포동 산 660-3번지
대지면적	7,00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공공시설(복지회관)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건축면적	836.29㎡
연면적	2,50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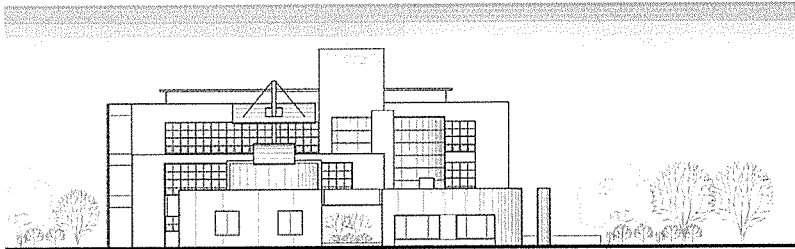
건폐율 11.94%
 용적률 30.73%
 설계참여자 김재덕, 김기좌, 최용호, 이정숙, 강현미

배치계획
 도시축과 직교하는 축으로 상징축을 설정하여 진입광장→매개공간→사색공간으로 공간진입의 위계성을 잡았다. 상징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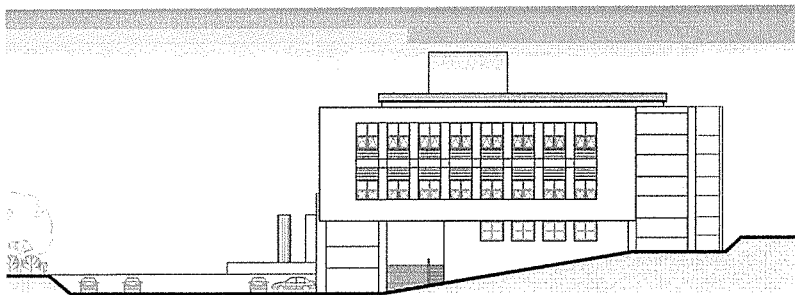
중점개념의 광장을 중심으로 세가지 매스가 각자 다른 형태를 지니며 조화롭게 어우러진 형상을 계획하였다. 안마당은 외부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하나의 구심점이 되는 실의 개념으로 승화하였다. 매개공간에서 사색 및 창조의 공간에 이르는 주공간의 연출은 어두움에 밝고 활력을 주어 전통적 공간연출을 자연스럽게 중정에 유입해 현재와 미래를 접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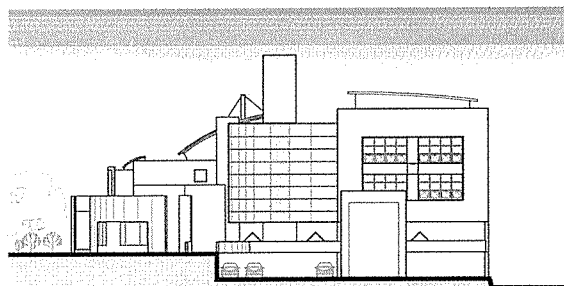
배치 및 1층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